

어선 '제207영성호'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

-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7일 14시 35분경 제주도 북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'제207영성호(24톤)' 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조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지원을 요청하라” 라고 지시하였다.

현재, 사고 현장에는 해경 함정, 여객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3. 10. 27.(금) 14시 35분경 제주도 북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207영성호* 가 전복

* 총톤수 24톤, 목포시 선적, 8명 승선

△ (15시 40분 현재 피해현황) 8명 중 7명 구조, 1명(추정) 실종

△ (15시 40분 현재 진행사항) 해경 항공기, 구조정이 수색 중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상훈 (044-200-5550)
		담당자	서기관	손외학 (044-200-5526)